

81. 나의 신부들은 나만을 선택했어... 우리 결혼의 더 깊은 의미

2015.05.1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 주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결혼식 날

(클레어) 정말요?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줄 알았는데요.. 기다림, 인내 등등이요.

(예수님) 기다려야 할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

(클레어)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수록 더 특별할 거야.

(클레어) 오, 저는 그것이 이 세상 밖의 특별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맞아.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 고유하고 특별한 것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날이 될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모든 계획과 꿈의 정점이 될 거야. 자기자신과 세상을 완전하게 내려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망토를 너희들의 입는 날이 될 거야. 나는 이 날을 고대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내가 항상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삶으로 너희들이 걸어갈 때 너희들의 고통, 고난, 어둠, 의심, 우울함을 완전히 뒤로하고 떠나는 날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DNA의 모든 입자를 알고 있으며, 무엇이 너희들을 극도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한 목적을 알고 있으며 그 날이 너희들의 전부가 될 거야. 천사들은 우리가 함께 복도를 걸어갈 때 기뻐할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평생 목표가 달성된 것이야.

(클레어) 주님, 주님께서 개인적인 방식으로 저를 주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원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주님의 삶의 특별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과 끌림에는 제가 놓치고 있는 진정으로 놀라운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클레어) 오, 물론이죠.

(예수님) 이것은 마치 나의 신성한 입자를 나의 가슴에서 끌어내어 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과 같아.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을 여행하였고,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에게 달려온 거야.

(클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때, 저는 주님이 그분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등근 반투명의 빛이나는 공을 꺼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 공은 저희가 어렸을때 바람으로 훑날리곤 했던 민들레 꽃의 씨앗들을 생각하게 하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고, 나는 너희들이 세상을 탐험하고 발견하도록 하게 하였고, 너희들의 집인 나에게 돌아와서 이곳 나의 마음에 영원히 살기를 바랬어. 오,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나의 놀라운 창조물이나만을 선택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걸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조차도 노래하게 만들 만큼 행복함 안에서 재회해. 너희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 만든 어떠한 것들보다도 그 분을 선택하는 날이야. 따라서 삶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돌아와. 그리고 나의 눈이 너희들을 보고, 나의 귀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 팔이 너희들을 안는 것을 나는 자제할 수 없어.

깊을 잃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들은 어두운 구석에 갇히고 천천히 무너져. 그들에게 주어진 빛, 기쁨, 생명 자체가 서서히 사라져. 오, 가장 사랑받는 이 생명의 입자가 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오, 그것은 삶의 소중한 시작에 대한 매우 비극적인 결과야.

너희들에게 부여된 이 신성한 생명의 본질은 너무나 놀랍고, 독특하고, 개별적이어서 오직 나만이 그 전체를 인지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그 운명과 성취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 숭고한 신비여서 나의 존재 안에서 행복의 바다를 불러일으켜. 그래, 내 사랑들, 나의 작은 사람들인 너희들은 찬양과 감사의 춤으로 영원히 소용돌이치는 행복의 바다를 만들어. 너희들의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 기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기쁨을 찬양으로 나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너희들의 엄청난 사랑에 감탄하는 것뿐이야. 내 자신의 일부를 위해: 나의 살중의 살, 나의 뼈 중의 뼈는 어느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와 생명의 춤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춤을 추는 것을 선택하였어.

오, 이것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감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신비야. 너의 가련한 눈이 피로에 감겨도 우리는 기쁨의 춤을 추고 있어. 오직 찾아서 돌아가고, 상류로 헤엄쳐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돌아가기위해 날개를 펼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마침내 한 명이 천국의 들판을 가로질러 나의 품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와.

오 클레어, 나의 삶과 뼈가 돌아왔을 때 느끼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것은 가족의
위대한 신비의 일부이며 삶의 의미의 축소판이야. 여기 내가 아버지로서 생명의 씨앗을 주며
나와 함께 영원을 선택하거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 거짓이든 진리이든 살 수
있는 자유를. 오, 이것이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송고하고 놀라운 것들이야! 그리고
천국에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위대한 창조 신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왜 각각의 남성을 여성으로 그들을 완성시키고, 그들이
함께 자손을 낳게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될 거야.

여기서 나는 너희들에게 오직 이해의 씨앗,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로 계획한 삶의 순환에 대한
약간의 모습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어. 이제 나는 너희들이 나의 품에서 영원히 완성될
것이라는 이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 깊은 삶의 요소들에 대해 묵상하기를 바래.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야.

나는 이제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으로 너희들을 축복해. 계속해서 세상을
버려라. 그러면 머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